

# 2025 코트디부아르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 Contents

<b>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b>	<b>3</b>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정치적 안정성과 도전	5
나. 다각화·현대화에 중점을 둔 국가 개발 계획 지속 추진	6
다.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경제협력 가속화	7
<b>II. 비즈니스 환경 분석</b>	<b>9</b>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2. 시장 분석	19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9
나. 교역	20
다. 투자	2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4
가. 교역	24
나. 투자 진출	26
다. 협력 유망 분야	27
<b>III. 진출전략</b>	<b>29</b>
1. PEST 분석	29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0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1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3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39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잡정)	40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1

## 1. 개요

### 가. 시장 전망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되나 경제는 지속 성장세 전망 **상승**

- (경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강세로 인해 코트디부아르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 유지

\* 경제성장률(세계은행/IMF) : 6.2%('22) → 6.2%('23) → 6.5%('24) → 6.4%('25)

- (소비) 국내 소비는 높은 물가로 둔화되었으나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은 완만한 성장 기록

- 인플레이션은 10년 만에 최고치였던 5.2%('22)에서 4.4%('23)로 둔화, 서아프리카 他 저중소득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구매력 유지 중

- (정치) '20년 10월 대통령 선거 이후 안정적인 정치가 유지되었으나, '25년 10월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 향방에 따라 정치적 안정세 변화 가능성 존재

- (투자)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 성장 견인

- 다만, 북부 지역 인근국(말리, 부르키나파소) 테러로 인한 난민 문제 및 안보 이슈가 투자 환경에 변수로 작용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27.01	27.28	28.57	29.39	30.23	31.09	31.98	32.9
명목GDP	십억 달러	58.52	60.38	63.12	72.83	72.05	79.98	86.91	93.89
1인당 명목GDP	달러	2,170	2,170	2,210	2,248	2,380	2,570	2,720	2,850
실질성장률	%	4.8	6.7	0.7	7.1	6.2	6.2	6.5	6.4
실업률	%	2.9	2.4	2.6	2.6	2.4	2.4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0.6	0.8	2.4	4.2	5.2	4.4	3.9	3
재정수지(GDP대비)	%	-3.9	-2.2	-3.1	-3.9	-7.7	-6	-3.8	-2.6
총수출	백만 달러	11,819	12,724	12,487	15,332	16,434	18,342	N/A	N/A
(對韓 수출)	"	119	136	113	183	170	217	N/A	N/A
총수입	"	10,970	10,486	10,650	14,006	17,946	18,834	N/A	N/A
(對韓 수입)	"	7	5	5	15	18	7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848	2,248	1,837	1,326	-1,511	-492	N/A	N/A
경상수지	"	-2,327	-1,348	-2,052	-2,874	-4,350	-4,378	-225	-1,65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555	586	575	579	6.23.8	606.6	6.07	610.2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45	120	1	285	168	215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20	936	713	1,377	1,599	1,753	N/A	N/A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코트디부아르 통계청, UNCTAD, World Bank, GTA, 한국무역협회, EIU, IMF

##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2025년 대통령 선거, 인근국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탈퇴, 북부 지역 테러 발생 등은 정치·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 다대 → 외국인 투자 환경에도 악영향 예상
- ※ 한편,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경제발전 다각화·현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
- ※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경제 협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 존재

### 가. 정치적 안정성과 도전

#### □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긴장감 고조 가능성

- '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평화 유지
  - '10~'11년 선거 이후 10여 년간의 안정적인 정치는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현 대통령 집권당(RHDP\*)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의 4번째 임기를 지지하나, 야당은 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거부할 가능성 존재

\* RHDP(Rassemblement des Houphouëtistes pour la Démocratie et la Paix) :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우무에티스트 집결당

#### □ 북부 지역에 대한 이슬람 테러 단체의 침입은 국가 정치·안보 문제로 연결

- 사헬 지역의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 국가에 정기적으로 침입하여 국가적 안보 문제 발생
  - 현재까지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이들의 침입을 잘 막아내고 있으나, 북부 지역 인근 국가들의 테러 난민 유입 문제로 인근국과의 갈등 고조 예상

#### □ 사헬 3국(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탈퇴('24.1월)로 인한 지역 정치적 통합 약화 가능성

\*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1975년에 설립된 서아프리카 15개국 간의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

- (안보) 동 기구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집단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기구로, 특히 사헬 지역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 이들 3개국의 탈퇴는 테러리즘 대응에서의 협력 약화 및 지역 안보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 존재
- (지역 정치) 3개국의 탈퇴로 인해 동 기구의 정치적 통합이 약화되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리더십과 효과성 저하 우려

## 나. 다각화·현대화에 중점을 둔 국가 개발 계획 지속 추진

### □ 국가개발계획 (PND 2021~2025 : Plan National de Developpement)

- 2030년까지 코트디부아르를 중소득 국가로 전환 목표

- 연간 평균 7.7%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총 1,050억 달러의 투자 목표 수립

- \* 1,050억 달러 투자금액 중 74%는 민간 부문 자금 유치 계획 (Oxford Business Group)

- 부문별 주요 개발 계획

- (인프라 및 산업화)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교통, 에너지, 제조업과 같은 부문에 공공 및 민간 투자 집중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약 33억 달러 규모의 국가 디지털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농업 및 농산업) 코트디부아르는 세계 최대 카카오 및 캐슈넛 생산국인바,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원자재의 현지 가공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도모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고용 및 경제 다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 정부는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행

- (신규 부문 투자) 코트디부아르의 '24~'26년 경제 전망은 석유 개발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코트디부아르가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 허브로서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비전 2030 (Vision 2030)

-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 계획

- 경제 다각화와 산업화를 촉진하여 코트디부아르를 상위 중진국(Upper Middle-Income Country)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

- 부문별 주요 개발 계획

- (경제 구조 개혁) 산업 및 농업의 가공 능력 향상 및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군 다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목표

- (인프라 개발) 주요 인프라(도로, 항만,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및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목표

- \* 아비장 항구 확장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포함

- (환경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천연자원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강화

## 다.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경제협력 가속화

□ 유럽 투자은행(EIB : European Investment Bank) : 농업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경제 협정 체결('23.9.)

- 코코아, 캐슈넛 및 기타 식량작물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목표
  - 동 협정은 '23.9월 약 2,800만 달러 규모로 체결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프라, 지속 가능한 농업, 에너지, 교통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

※ 유럽연합(EU)의 코트디부아르와의 경제 협력 협정(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08)  
코트디부아르의 상품을 EU 시장에 무관세, 무쿼터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혜택은 특히 코코아, 커피, 카카오 가공품과 같은 주요 수출품에 있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였음

□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19~'24)

- 6년간 약 5억 3,670만 달러 규모의 콤팩트 보조금을 통해 경제 성장의 주요 제약사항 해결
  - 아비장 지역의 교통 이동성 부족과 낮은 기초 기술 및 직업 기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이에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은행 소득 분류에서 '20년 저소득국에서 저중소득국으로 상승
-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02년부터 미국과의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에도 참여하고 있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확대
  - 동 법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으로 특정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코트디부아르도 이러한 혜택을 활용해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수출 증대 중임

\* AGOA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인프라 개발(항만 및 물류 부문 투자) 집중

-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약 2,455억 엔 규모의 차관 협정을 체결하여 아비장 항구의 곡물 부두 건설 프로젝트 지원
  - 이 프로젝트 목적은 코트디부아르와 인근 내륙 국가들(부르키나파소, 말리 등)의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물류 효율성 개선
  - 이는 일본이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여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일본-코트디부아르 간 투자 보호 및 촉진 협정(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체결('20)  
일본 기업들이 코트디부아르에 투자할 때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

## □ 중국의 아비장 항구 확장 프로젝트 및 양국 간 교역 관계 활성화

### • 중국의 아비장 항구 확장 프로젝트 자금 지원

- '22년 새로 개장한 아비장 항구는 아비장 항구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동 프로젝트는 약 9,000억 달러 규모로 중국 대출기관이 85% 자금 조달
- 이를 통해 코트디부아르가 서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중국의 코트디부아르 대출액이 '20년 기준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코트디부아르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대출기관들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상황

### • 코트디부아르 국방부, 중국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을 통해 안보협력 강화

- 코트디부아르군 작전 역량 강화 및 對테러 등 안보 문제 대처를 위해 '24.6월 코트디부아르 Tene Brahim OUATTARA 국방부 장관과 중국 항공기술수출입공사(CATIC : China Aero-Technology Import&Export Corporation) Hu Guanxi 부사장이 항공 자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구입 기종, 가격 등 상기 계약 관련 구체적인 내용 발표는 없으며, 아프리카 유력 언론 Jeune Afrique지는 코트디부아르 국방부가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유로콥터)사와 계약하고자 했으나 당사가 전투 헬기(MH-65 Dolphine)를 18개월 내 공급할 수 없어 중국으로부터 전투 헬리콥터(Harbin Z-9) 및 여타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보도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2025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선거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와타라 대통령의 4선 도전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 경제적으로는 2023년 6.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석유 및 금 수출 증가와 투자가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에서 경제적 허브로 자리 잡고 있으며,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개소로 녹색성장 촉진에 힘쓰고 있음

### 가. 정치 환경

#### □ 2025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선거 전망

##### • 정치적 안정성 및 위기 공존

- '24년 정치 환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25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 재발 가능성 존재

\* '20년 선거 후 폭력 사태로 85명 사망, 정치적 안정 취약

- 현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25년 대통령 선거 4선 출마 시 사회 불안 심화 및 야당의 선거 거부 가능성

##### • 정치적 불안정 요인

- 종파 및 민족 간 분열 문제 미해결
- 전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의 선거 명단 제외 문제

\* 그바그보의 '25년 선거 참여자격 박탈 시 전국적 시민 불안 우려

##### • 전망

- EIU(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과 같은 대규모 내전 가능성은 낮게 평가

#### □ 코트디부아르 정당 구조

- 코트디부아르 정치 구조는 다당제로 운영

-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우후에티스트 집결당(RHDP)\* : 현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 가장 강력한 여당이며 '20년 대선과 최근 의회 선거에서 다수의 의석 차지

\* RHDP : Rassemblement des Houphouëtistes pour la Démocratie et la Paix

- 또한, 야당으로는 앙리 코난 베디에가 이끄는 코트디부아르 민주당(PICI-RDA\*),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코트디부아르 인민전선(FPI\*)이 있으며, 그바그보는 이후 새로운 정당인 아프리카 인민당(PPA-CI\*)을 창당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립하려 하고 있음

\* PICI-RDA : Parti Démocratique de Côte d'Ivoire-Rassemblement Démocratique Africain, FPI : Front Populaire Ivoirien, PPA-CI\*:Parti des Peuples Africains-Côte d'Ivoire

• **코트디부아르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며 국회(Assemblée Nationale)와 상원(Sénat)이 있음**

- 국회는 2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상원은 9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3명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

## 나. 경제 환경

### □ 최근 경제 동향

• **실질 GDP 성장률은 '23년 6.2%, '24년 6.5%로 예상되며 '25년은 6.4%로 전망**

- 주요 성장 요인은 석유 및 금 수출 증가, 공공 및 민간 투자와 국내 소비 증가로 나타남

- 식량 농업, 건설 및 공공사업, 제조업, 채굴업, 무역, 운송업의 활성화로 경제 성장 유지

• **인플레이션율은 '22년 5.2%에서 '23년 4.4%로 감소**

- 이는 서아프리카 국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생계비 상승 억제 조치의 효과

• **정부의 성장 포용성 강화 및 청년 고용 창출 촉진 노력**

- 빈곤율\*은 '18년 39.4%에서 '21년 37.5%로 감소

- 청년 실업률(15~24세)\*은 '20년 5.4%에서 '23년 4.9%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음

\* 자료 : 아프리카개발은행

### □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성장

•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꾸준한 성장세 유지**

- '23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17억 5,300만 달러로, '22년 유치액 15억 9,900만 달러 대비 9.6% 증가

\* 자료 : UNCTAD

## □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

-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경제화폐연맹(UEMOA : Union Économique et Monétaire Ouest-Africaine) 전체 인구의 21.4%, 국내총생산(GDP)의 40% 차지
  -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CEN-SAD), 마노강연합(MRU)의 회원국이며 지역 경제 및 사회문화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 코트디부아르가 가입한 지역 연합체

- 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1975년에 설립, 서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통합, 경제 개발, 안보 강화 목적
- ②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 1998년에 설립된 지역 기구로, 사헬 및 사하라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과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
- ③ 마노강연합(Mano River Union) :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서아프리카의 국가들 간에 경제적 협력과 지역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

- '03년 튀니지 튀니스로 본부를 이전했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14년 아비장으로 복귀하며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력 강화

## □ 비즈니스 환경 지속 개선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했던 'Doing Business Report' 최신 데이터에서 코트디부아르는 '20년 비즈니스 지표 순위(Doing Business Index ranking) 110위 기록
  - 동 지표는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고 기업의 설립·운영·폐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규제 및 행정절차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
  - 코트디부아르의 비즈니스 지표 순위는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 비즈니스 지표 순위 : 139위('18) → 122위('19) → 110위('20)

## 다. 산업 환경

### □ 코트디부아르 산업 부문 개요

- 코트디부아르 산업 구조
  - (1차산업) 코트디부아르 산업 중 농작물 생산·수출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40%,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코코아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슈넛 생산은 세계 3위, 그 밖에도 팜유, 커피, 오일 등이 있음
- (2차산업) 2차산업 부문은 '21년 GDP의 29%를 차지했으며, 이는 '20년 GDP의 16.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주요 산업 분야 : 식품 가공, 광물 및 섬유 가공 등
- (3차산업) GDP의 51% 비중을 차지하고 고용 비중은 47%로, 최근 몇 년간 코트디부아르의 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 정보통신기술 부문은 '18년 기준 GDP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코트디부아르 투자청)

### 〈산업 부문별 GDP 비중 ('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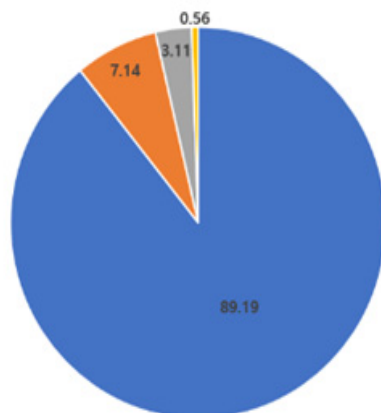
산업 부문	GDP 비중(%)	주요 산업
1차산업	20	농업
2차산업	29	추출 산업, 에너지, 농식품 및 건설
3차산업	51	통신, 운송, 무역 및 금융업

자료: 코트디부아르 통계청

### • 코트디부아르 기업 활동 분석

- 코트디부아르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기준 코트디부아르 기업 중 89.2%가 제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채굴업으로 전체 기업의 7.1% 차지. 물, 위생 및 폐기물 처리 부문의 기업은 3.1%, 전기 및 가스 생산 및 공급 기업은 0.6%로 나타남

### 〈코트디부아르 산업 부문별 기업활동 비중〉



■ 제조부문 ■ 채굴부문 ■ 물, 위생 및 폐기물처리 ■ 전기·가스생산 및 공급

자료: 코트디부아르 통계청

## □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 (현황)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구매력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질병 예방·퇴치를 통한 건강한 삶 추구
- '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방역 노력으로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유망 품목 : 암/말라리아/뎅기열/간염 등의 질병 진단기기 및 시약, 초음파 진단기기, 소독/멸균기, 각종 의료 소모품(장갑, 주사기 및 바늘, 진공채혈관, 수술용 가운, 감염지, 병원용 가구(의료용 침구) 등)

### ※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 요약

- '23년 기준 15억 7천만 달러 규모로, '28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하여 '28년에는 18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 증가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
- \* 주요 성장 동력 : 인구 증가, 중산층 확대, 건강 관리 투자 증가, 의료 기술 발전 등

### • (전망) 코트디부아르 내 다수의 종합병원 설립 혹은 설립 계획으로 보건의료 시장은 지속 확대 예상

- '22년 7월 코트디부아르 최대 규모 의료시설인 아보보 대학병원(CHU D'Abobo) 착공식이 개최되었으며, 완공 후에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시설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 \* CHU d'Abobo(Centre Hospitalier Universitaire d'Abobo)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600개 병상 규모이며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해 최신식 소아병동과 미숙아 치료를 위한 신생아 병동도 개설 예정 (완공 시기 : 36개월)
- 또한 한국 EDCF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암센터 건립사업은 코트디부아르의 암 치료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종양학 관련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단과 치료 환경 제공 예정

### • (특징) 제품 품질 및 가격경쟁 치열, 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 (의료기기) 일부 고가 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저렴한 가격의 기기/장치 선호,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
- (의약품) 불법 의약품 만연으로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외국 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과정이 복잡한 편

\* 코트디부아르는 의약품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의약품 수입 관련 제품 등록 등 기본적인 절차를 현지 에이전트/프로모터를 통해 진행 필요

### • (시사점) 납품 대상 주체(공공·민간 부문)와의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 원활한 사후 지원 서비스(유지보수, 교육 등) 제공 중요

- 현지 의료계와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협력업체/에이전트 발굴 필요
- 의료기기의 경우 AS 등 사후 지원 서비스 제시 필요

## □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② - 소매유통

- **(현황) 소매유통 분야는 GDP에서 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
  - '22년 소매유통 시장 규모는 판매액 기준 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전망) '04~'22년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23년에는 10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
  - \* 자료 : 유로모니터
- **(특징) 점포 판매 비중이 절대적이며, 소득 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 뚜렷**
  - 점포 판매 비중이 95% 이상인 반면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의 원거리 쇼핑 비중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
    -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구매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온라인 구매에 대한 통계 파악 불가
  - 중상류층의 경우 대형 슈퍼마켓과 쇼핑몰을 이용하는 반면, 서민층의 경우 재래시장, 동네 상점을 주로 이용
  - 레바논계 프로슈마 그룹(Groupe Prosuma)의 시장 지배력이 두드러짐
    - \* 1966년 창립 이후 '24년 기준 159개 매장을 운영하는 주요 소매 그룹으로, 17개의 다양한 브랜드 보유 (Casino, Super U, Monoprix, FNAC 등)
- **(트렌드) 아시아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 대형 유통망은 대부분 레바논계에서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차이나몰(China Mall) 등이 다수 입점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 확대
  - 아시아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산 라면, 양념류, 튀김가루, 과자 등이 대형 마트 내 조금씩 입점하고 있음
- **(시사점) 온라인 유통망보다는 오프라인 유통망 위주의 시장인바, 대형 유통망 공급 가능한 1차 벤더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 내 프랑스어 표기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③ - 화장품

- **(현황) '23년 코트디부아르의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은 17억 6'000만 달러의 규모를 기록**
  - 코트디부아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80%는 수입산이며, 일부 코트디부아르 현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현지 생산량은 전체 화장품 수요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망) '24년에는 18억 4,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
  - 특히 온라인 판매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24년에는 코트디부아르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 전체 매출의 1.9%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코트디부아르 화장품 시장은 '24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자료 : STATISTA

## ※ 아프리카 화장품 시장 요약

- '22년 시장 규모는 약 130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8~10% 성장하며 '30년에는 약 216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이는 세계 시장 성장률(4%)보다 훨씬 높은 수치
- \* 주요 성장 동력 : 인구 증가, 중산층 확대, 젊은 소비자층 증가 등

- **(특징) 검증되지 않은 수제 화장품 사용 등 불법 또는 위조 화장품 유통 증가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관련 원료 및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 화장품 원료 중 하이드로퀴논 2% 이상 함유, 수은 및 그 유도체, 코르티코이드, 비타민 A 등이 함유된 화장품의 경우 현지 생산 및 수입 금지 조치
  -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화장품 특별세는 50%에서 15%로, 그 외 제품은 10%로 관세를 인하
  - \* 코트디부아르로化妆품을 수출할 때 COTENA, SGS, BUREAU VERITAS, INTERTEK에서 적합성 인증서(COC)를 받아야 함
- **(트렌드) 미백 화장품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산 화장품이 대세**
  - 코트디부아르 화장품 주요 수입국은 '21~'23년 3년 연속 프랑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세네갈,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 진출 현황은 Mac Cosmetics(캐나다), Maybeline New-York(미국), Unilever(영국), Beiersdorf(독일), Unhycos(프랑스), Yves Rocher(프랑스) 등의 브랜드가 코트디부아르 주요 쇼핑센터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 있음
- **(시사점) 코트디부아르는 아직까지 K-beauty 열풍이 불지 않은 초기 단계 시장인바, 한국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소량 주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 필요**

## □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④ - (중고)자동차 및 부품

- **(현황/전망) '21년 기준 코트디부아르 자동차 시장 규모는 5억 2,000만 달러\*로 추정**
  - 이는 전년 대비 5.5% 성장한 수치로 향후에도 꾸준한 시장 확대가 기대됨
  - \* 현지 정보 매체 KOACI 발표
- **(트렌드) 미니버스 조립공장 개소 및 전기차 도입 움직임**
  - '22년 1월 아비장 교통공사는 국가 차량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쿠마시 지역에 연간 1,000대의 26인승 미니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코트디부아르 최초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
  - '22년 2월 코트디부아르 환경부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기차 도입 계획 발표. 그러나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징) 중고차, SUV, 유럽 및 일본 브랜드 강세**

- 구매력 대비 차량 가격이 매우 고가이므로 일반 소비자들의 중고차 수요가 높은 편

- \* '21년 기준 전체 운행 차량은 150만 대이며, 이 중 60% 이상이 중고차인 것으로 추정됨

- 현지 도로 사정으로 SUV나 픽업트럭 등의 차량을 선호, 관련 수요가 많음

- \* 아비장 시내의 경우 트럭, 승용차 대비 4륜 구동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음

- **(수입 제한) 5년 이상 된 승용차, 7년 이상 된 5톤 미만 트럭, 10년 이상 된 34인 이상 차량 수입 금지**

- 노후 중고 차량의 다수 유입으로 대기오염은 물론, 교통 체증 및 자동차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 연식에 따른 중고차 수입 금지 조치 시행('18.7월)\*

- \* 코트디부아르 교통부의 '23.7.7(금) 발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2022년 차량 평균 연식은 '18년으로, '22년보다 5% 감소

- \* 신차 판매 증가율은 1985~2018년 20%, 2018~2020년 26%, 2020~2022년 56%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

- 이후 중고차 수입이 일시 급감했으나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계층에서 중고차 수요가 지속되면서 업계에서는 원만한 회복세 기대

- \* 차종별 수입 가능 연한은 승용차 및 택시는 5년, 미니버스 및 5톤 트럭 미만 트럭은 7년, 5톤 이상 트럭 및 34인 이상 차량은 10년 이하

- **(시사점) 상대적으로 최신 연식인 한국 차량\*에 대한 선호도 증가 기대**

- 수입 제한 조치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비교적 최신 연식인 한국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임

- \* 다른 국가에 비해 차량 교체 주기가 빠른 편으로 최신 연식의 중고차 공급이 용이

## 라. 정책·규제 환경

### □ 농산물 및 천연자원 가공산업 집중 육성

- **카카오, 커피, 면, 캐슈넛, 고무 등의 농산물 및 천연자원 생산력에 비해 가공 기술이 미흡하여 부가가치 창출 난망**

- \*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농산물별 가공률 현황 : 코코아(반제품 33%, 완제품 1.5%), 커피(5~10%), 캐슈넛(15%), 면사(2.3%), 천연고무(2% 미만) (자료 : 현지 언론 및 보고서, 관련 기업/바이어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KOTRA 아비장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 **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 고용 창출 도모**

- 가공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협력 및 투자 진출 사례

- \* UAE 알 사예흐 그룹(Al Sayegh Group) : Boundiali 소재 캐슈넛 가공공장 '23.8월 시운전, 11월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 일일 50톤의 캐슈넛을 생산, '24.1월부터 현 공장 부지 내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일일 생산량을 100톤까지 끌어올릴 계획

- \* 싱가포르 Royal Nuts社 : '22.7월 Toumodi 소재 캐슈넛 가공공장 준공식 개최, 투자 금액은 300억 원 수준

## □ 중소기업 활성화 모색

### • 전체 기업 수의 98%, 고용의 2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 코트디부아르 중소기업연합회(FIPME)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64%가 창립 10년을 넘기지 못하며, 60%에 달하는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재정 지원 경제포럼'\* 등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

\* '16년 1차 포럼 이후 19개 금융기관에서 1조 2,760억 세파프랑(약 21억 4,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 정부 예산 중 1,905억 달러 가운데 생산 및 산업 개발에 3.8%인 72억 4,000만 달러 책정

## □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 체결, 단일 화폐(ECO) 등 도입 추진

### •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체결

- 54개국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 공식 출범으로 역내 교역 활성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산업화 추진 가속화

\* '18.3월 르완다에서 아프리카연합(AU : African Union) 27개 회원국 참여로 시작, 현 55개 회원국 중 54개국 서명 완료

\* 코트디부아르의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24%에 달해 대륙 전체 평균인 7%를 월등히 상회하여 세계은행에서는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국가가 코트디부아르가 될 것으로 전망

## □ (ESG) 신재생에너지 장려

### • (정책) 코트디부아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 수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4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22년 10월 14일 발표)

- 지역 내 일자리 300만 개 창출, 3만 가구에 청정에너지 공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만 7천 톤 감소 등 효과 기대

### • (현황/전망)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비중 및 투자 확대

- '30년 기준 동 부문 투자 90억 달러 돌파 예상 (자료 : International Finance Company)

- 강한 일조량\*, 풍부한 바이오매스 원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편

\*  $\text{km}^2$ 당 일일 일조량은 3~5kWh, 일조 시간은 6시간/일

\*\* 목재, 각종 농업/임업 폐기물, 가정 쓰레기 등

### • (특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관심

- 에너지 공급 안정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한 기술 도입이 시급,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 대두

-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5,000만 달러 투자 계획임

• (시사점)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제품/기술/설비 위주의 진출 모색

- 한국 제품의 경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경쟁 격화로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가 관건
- AS, 기술인력 훈련 지원은 필수사항임

• (사례) Boundiali 태양광 발전소 2023년 6월 완공

- 코트디부아르전력공사(CIE)는 Boundiali 태양광 발전소 '21년 12월 착공
- 동 발전소는 독일개발은행(KfW)과 유럽연합(EU)이 각각 400억 원, 140억 원을 지원하여 건설
  - \* 37.5MW급의 발전소는 10MW급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갖춰 잉여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 가능하여 코트디부아르 전력 사용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 ESS는 프랑스 Total Energies 자회사인 SAFT가 2022.5월 공급 계약 체결
- 동 발전소는 코트디부아르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로, 에너지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코트디부아르가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허브로 거듭나고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개소

- 개발도상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설립되어 자문 제공, 경험 공유, 녹색 성장 모델 제시를 주 업무로 하며 코트디부아르는 '20년 9월 정식 멤버로 가입

## 2. 시장 분석

- ※ 코트디부아르는 연간 7%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서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및 경제 환경 유지
- ※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현대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1~2025년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로의 전환 목표
- ※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이며, 특히 농업, 에너지, 광업, 인프라, ICT,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 장려 → 2023년 기준 17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경제 성장 가속화

- **연간 성장률 7% 후반대. 경제 발전 가속화로 산업재·소비재 동시 성장**

- 인프라 및 주택 건설 활성화, 생활 수준 개선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가

\* IMF는 코트디부아르의 1인당 GDP를 '22년 2,470달러로 발표하며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선정 (1인당 GDP : 2,650달러('23), 2,759달러('24, 예상치) (자료: IMF))

- **서아프리카의 다른 저중소득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구매력 유지**

- 아비장을 포함한 도시 지역에서는 대형 슈퍼마켓과 쇼핑몰이 빠르게 확장되며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
- 다만, 일반 서민층은 여전히 재래시장, 중고시장 등을 통해 값싼 제품에 의존

#### □ 국가 주도로 산업화 및 현대화 노력 강화

- **'12년부터 제1차 국가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제3차 국가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첫 번째 계획(2012~2015년)은 내전 이후 경제 회복과 인프라 재건에 중점
- 두 번째 계획(2016~2020년)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현재 코트디부아르는 세 번째 계획(2021~2025년)을 실행 중이며, 이는 코트디부아르를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3차 국가개발계획 주요 분야 : 산업화를 통한 경제 구조 변화 가속화,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 촉진, 민간 분야, 투자 진흥, 사회 포용, 국가 연대, 사회활동 강화, 균형적인 지역 발전,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강화, 정부 현대화, 문화 변화

#### □ 서아프리카 내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조건 : 안정된 정치 및 경제 환경

-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물가 및 화폐 가치 하락 등으로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환경과 환율로 투자 유리

- 2025년 대통령 선거가 정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2010년과 같은 내전의 우려는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서아프리카 CFA 프랑'은 프랑스 중앙은행의 보증 하에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어 통화 안정성이 매우 높음

## 나. 교역

### □ 코트디부아르 교역 현황

- 코트디부아르의 최근 3년간 총교역액은 '21년 293억 3,900만 달러에서 '23년 371억 7,600만 달러로 증가
  - 특히 '23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8.1%의 눈에 띄는 성장 기록

#### 〈최근 3개년 코트디부아르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총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21	29,339	15,332	14,006	1,326
2022	34,379	16,433	17,945	-1,512
2023	37,176	18,342	18,834	-492

자료: Global Trade Atlas

#### • 수출

- '23년 코트디부아르 총수출은 183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11.6% 증가
- 수출 상위 5개국은 네덜란드(13억 2,000만 달러, 11.5%), 베트남(9억 2,600만 달러, 5%), 말리(8억 7,500만 달러, 8.7%), 스위스(8억 3,200만 달러, 10.6%), 말레이시아(7억 9,900만 달러, 5%) 순
- 주요 수출 품목은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이 '23년 코트디부아르 총수출의 31.6%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광물 연료 및 오일(15.7%), 자연 진주 및 보석(12.8%), 고무 및 고무제품(11.2%), 식용 과일 및 견과류(8.3%) 순

#### 〈최근 3개년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2단위)	품목명	2021	2022	2023
1	18	코코아 및 그 제품	5,961	5,034	5,800
2	27	광물 연료, 오일	1,718	3,000	2,886
3	71	천연 진주, 귀금속	1,710	1,913	2,354
4	40	고무 및 관련 제품	1,533	1,856	2,053
5	08	식용 과일 및 견과류	1,349	1,224	1,513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

- 수입은 '22년 179억 4,500만 달러에서 '23년 188억 3,400만 달러로 4.9%의 소폭 증가
- 수입 상위 5개국은 중국이 21억 6,000만 달러(14.9%)이고, 그다음은 프랑스(13억 1,000만 달러, 5.6%), 나이지리아(12억 6,000만 달러, 14%), 인도(8억 5,600만 달러, 5.2%), 미국(6억 7,400만 달러, 3.9%)임
-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 연료 및 오일(총수입의 25.5%), 원자로·보일러·기계(8.4%), 선박·보트 및 수상 구조물(7.9%), 철도 외의 차량(6.4%), 곡물(5.3%)임

〈최근 3개년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2단위)	품목명	2021	2022	2023
1	27	광물 연료 및 오일	2,414	4,820	4,793
2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	1,270	1,473	1,574
3	89	선박, 보트 및 수상 구조물	280	889	1,483
4	87	철도 외의 차량	1,135	1,085	1,212
5	10	곡물	1,014	1,166	999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 규제 및 관세

• 금지 품목 : 수입 수량 규제와 금지 품목으로 구분

- 수량 규제 품목 : 점진적인 자유화 대상으로 꼽히는 염색 면직물과 코트디부아르 석유공사(SIR : Société Ivoirienne de Raffinage) 생산 석유류 품목 등
- 수입 금지 품목 : 설탕, 제빵용 밀가루, 아날로그 TV, 방송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TV, 플라스틱 봉투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팜유, 코트디부아르 에너지 당국에서 발급한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가전제품(냉장고/냉동고, 에어컨, 전기 조명기구 해당)

• 수입 비관세 장벽

- 위생검역/안전조치 : 수입 전 해당 정부 부처의 인가\*를 득해야 하며, 살아 있는 동식물, 의약품, 음성 영상 등 매체, 총기류 등이 해당
  - 수입 전 육류·가금류·어류 등은 해당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해당 정부 부처 인가(Authorization)는 매번 사안마다 사전에 승인받는 것을 의미
- \*\* 허가(Agreement)는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1년 또는 특정 기간별로 승인을 받거나 혹은 갱신을 의미

• 기술 장벽 조치(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18년 7월 17일부로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여 수출선적인증서(Verification de la Conformite : VOC)를 발급받아야 함

- (발급 절차) 코트디부아르 상무부에서 위임한 4개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
  - ① 선적 전 검사업체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컨테이너 내용 확인
  - ② 선적서류 일치 여부 및 불량품' 수량 등 검사
  - ③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VOC를 발급해주며, 해당 문서를 바이어에게 송부 시 완료
- (발급기관) 4개 공인 검사기관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지역마다 여러 사무소를 운영
  - \*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
- (주의사항) VOC 발급 대상 수출 품목에 한해서 해당 문서가 누락된 경우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가격의 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관세제도

- 서부 아프리카 경제화폐연맹(WAEMU :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1994년 창설돼 1997년 역외 공통 관세를 제정하였으며, 코트디부아르는 회원국이라서 역외 공통 관세가 적용됨
  - \* 상설세 : 관세(DD), 통계 처리 로열티(RS), 연맹 귀속세(PCS) 등 / 임시세 : 역내 시장 보호세(TDP), 수입 조정세(TCI) / 특별제도 있음
- 관세율 알아보는 법 : 코트디부아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HS 분류 및 해설과 세율은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홈페이지 : [www.douanes.ci](http://www.douanes.ci)

## 다. 투자

### □ 외국인 투자 환경

#### •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투자에 유리한 환경

- 코트디부아르는 외국인에게 투자가 완전히 자유롭고 별도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기업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음
- 코트디부아르 투자청(CEPICI : Centre de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 en Côte d'Ivoire)은 기업 설립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사업 기회 홍보,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

#### • 외국인 투자 촉진 분야

- 농업(특히 코코아·캐슈넛 가공), 에너지(재생에너지와 석유산업), 광업, 인프라(교통 및 전력망 확장),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등에 외국 자본을 유입하여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촉진 노력

### □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중심 국가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

- UNCTAD에 따르면 '23년 코트디부아르는 17억 5,3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수치임
  - \* '22년 13억 7,000만 달러 대비 9.6% 증가
- '23년 총 FDI 재고는 약 159억 7,400만 달러로, 국가 GDP의 약 20.7%에 해당
- '23년 코트디부아르 투자청(CEPICI)에 따르면 주요 투자국은 부르키나파소가 11%, 튀르키예(7%), 중국, 프랑스, 토고(각각 5%)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추출 산업과 금융 분야에 주로 투자되고 있음
  - \* 산업(52.2%), 서비스(46.9%), 농업(0.9%) 분야에 집중

### 〈최근 3개년 對코트디부아르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2021	2022	2023
해당 연도 외국인 투자 금액	1,337	1,599	1,753
외국인 투자 누적액	12,816	13,691	15,974
그린필드(공장 설립)형 투자 건수	586	1,083	n/a

자료: UNCTAD, 2023년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 투자 진출 시 유의사항

- **관료주의**
  - 조세 당국과 관세 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의 관계는 준조세를 발생시킴
  - 특히 조세 당국은 세금 신고가 전산화되지 않아 인정과세제도를 택하고 있어 경영에 애로가 될 수 있음
- **문화 차이**
  -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관계로, 영어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음
  - 융통성과 자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과 달리 경직된 상하관계와 권위주의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
- **노무 문제**
  - 노무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법대로 하려는 의식이 선행되므로, 현지 노동법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비용 문제**
  - 법정 최저임금은 월 110달러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사회보장세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도 만만치 않음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가. 교역

##### □ 한-코트디부아르 교역 동향

###### • 총교역액

- '23년 총교역액은 2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  
\* '22년 총교역액 : 1억 8,800만 달러 기록
- '24년 7월 기준 교역액은 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5% 감소한 수치  
\* '23년 7월 기준 총교역액은 2억 2,300만 달러
- 최근 3개년 코트디부아르 무역 상대국 중 한국 순위는 31위('21), 24위('22) 및 37위('23)로 나타남  
\* 자료 : Global Trade Atlas

##### 〈한-코트디부아르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2		2023		2024.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88	-5.05	224	19.2	100	-54.5
수출	170	-6.8	217	27.1	94	-23.6
수입	18	15.2	7	-62.4	6	55.4
수지	152	-9.5	209	38.2	88	-57.6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4.8월 기준

##### □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수출 동향

- 2023년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총수출은 2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1% 증가했으며, 2024년 7월 기준 수출액은 9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6% 감소
  - 2023년 상위 5개 수출 품목은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모두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
  - 합성수지와 건설중장비는 2023년에 각각 32.7%와 4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11.1%와 -45.2%로 대폭 감소
  - 기타정밀화학원료와 기타어류도 2023년에는 증가했으나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8%와 -19.1%로 감소했으며 승용차도 -29.5% 감소

###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연번	MTI 코드	품목명	2023년		2024년 (7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총계	216,600	27.1	93,844	-23.6
1	2140	합성수지	45,727	32.7	26,273	-11.2
2	7251	건설중장비	49,931	49.4	18,651	-45.2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6,628	2.3	9,694	-31.8
4	0419	기타어류	35,742	266.1	9,196	-19.1
5	7411	승용차	11,354	-11.1	8,100	7.7
6	7412	화물자동차	4,436	-33.8	3,612	44.1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3,391	-18.1	1,974	16.6
8	5116	위생용품	3,601	19.6	1,742	-21.5
9	4490	기타섬유제품	7,471	148.1	1,540	-64.7
10	2262	의약품	6,399	-18.4	1,470	-51.8

자료: 한국무역협회

#### □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수입 동향

- 2023년 총수입은 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4% 감소했으나, 2024년 7월 기준 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4% 증가
  - 2023년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고무가 1위를 차지하며 대폭 증가하였고, 동괴 및 스크랩,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연번	MTI 코드	품목명	2023년		2024년 (7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총계	6,685	-62.4	6,084	55.4
1	0332	천연고무	28	30,779.1	2,499	8,795.0
2	0125	견과류	0	0.0	1,672	0.0
3	6221	동괴및스크랩	4,039	-46.1	1,534	-25.2
4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214	85.8	203	-85.8
5	0149	기타식물성재료	0	-42.4	110	-55.3
6	5129	기타가구	1	0.0	55	0.0

연번	MTI 코드	품목명	2023년		2024년 (7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7	4490	기타섬유제품	0	100.0	9	3,389.6
8	6430	컨테이너	0	0.0	1	0.0
9	8333	축전기	0	0.0	1	0.0
10	0151	커피류	0	0.0	0	3,436.4

자료: 한국무역협회

## 나. 투자 진출

### □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투자 동향

#### • 우리 기업 투자 통계

- 1984년 이후 對코트디부아르 투자 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40건, 투자금액은 약 6,100만 달러로 집계 (1985~1996년 내역 불명)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내전 전후 우리 기업의 투자는 광업에 치중되어 있었으나(전 기간 총 투자금액 5,800만 달러),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175만 달러), 건설업(35만 달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6만 달러) 등 투자업종이 다양해졌음
- 2021년 코트디부아르 신고액은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55만 달러이며, 2022년과 2023년 우리 기업 투자는 전무한 상황

#### 〈한국의 對코트디부아르 투자 통계〉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법인수(신규)	신고액	투자액
2019	0	0	0	0
2020	0	0	0	0
2021	1	0	550	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우리 기업 현지 진출(투자 진출) 현황

### • LG전자 진출 현황 (2004년~현재)

- LG전자는 2004년부터 지점 형태로 코트디부아르에 진출해 있으며, 가전제품 도소매·유통업 위주로 운영

####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성공 사례 ①】

##### □ 코딩 및 IT교육 교구 신규 수출

- (내용) 파일럿 프로젝트로 3~6개월간 3~6개월간 코딩 및 IT 교육 진행 후 교구의 안정성, 초등학생들의 반응을 종합하여 코트디부아르 전역에 보급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한국 SI 교구 수출
- (의의)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요청으로 SI 교구를 최초 도입한 사업이며, 초도 물량은 현지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안정성이 곧 검증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SI 교구 및 IT 장비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성공 사례임

####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성공 사례 ②】

##### □ 의료용 진단키트 수출

- (내용) KOTRA 아비장 무역관 지사화기업 세이브사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코트디부아르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코트디부아르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코로나 진단키트 납품
- (의의) 동 바이어는 코트디부아르 전역에 의약품 유통하며, 특히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경우 민간뿐만 아니라 코트디부아르 공공시설 공급도 담당하여 코트디부아르 민간 및 공공 의료시설 전역에 세이브 제품 수출 및 거래선 확대

## 다. 협력 유망 분야

###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코트디부아르 주요 농산물(카카오, 캐슈넛 등)에 대한 현지 가공산업, 디지털 혁신 산업, 재생에너지 및 주요 협력 유망

- '24.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코트디부아르 알라산 와타라 현 대통령이 방한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원자재 현지 가공, 재생에너지, 주요 인프라 분야에 투자하는 등 아프리카가 제공 중인 기회 활용 촉구
- 또한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10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 약정을 체결하여 EDCF 기금 활용 재생에너지, 디지털 혁신 및 보건 분야 등의 주요 협력 전망

###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의약품, 자동차부품 분야 협력 유망

#### 1) 제약산업 육성 정책

- (개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보건 분야의 과제를 극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25년까지 국내 의약품 생산 비율을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수립

\* 코트디부아르 내에서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약 5,000종하며, 자국민들이 소비하는 약물의 94%가 수입 제품임

- (산업 현황) 코트디부아르는 모든 등급 및 카테고리의 개인병원, 클리닉, 의료 센터 및 약국 등을 포함하여 총 2,036개의 시설 건강시설이 존재하며, 주요 5개의 로컬 업체\*가 활동 중임
  - \* 코트디부아르 주요 제약업체(OLEA, CIPHARM, LIC PHARMA, PHARMIVOIRE, LPC)는 제품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유럽 구매처로부터 조달받음
- (투자 기회)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낮거나 거의 없는 약물 생산공장 설립, 신기술 기반 의약 서비스 개발, 드론을 통한 약물 및 혈액 배달 서비스 구축 등 투자 기회 존재
  - \* 의료 서비스 제공 강화 프로젝트, 건강 피라미드 2, 3단계에 따른 치료센터 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
- (세제 혜택) '18년 8월,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법 마련.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연기, 세액 공제, 법인세 전액/부분 면제(5~15년) 등 다양한 세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

## 2)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정책

- (개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18년부터 '23년까지 신차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을 세우고 주요 5개 목표\*를 수립함
  - \* ① 자동차 차고, 유지보수 및 진단센터 네트워크 구축, ② 자동차부품 판매 네트워크 확대, ③ 차량 조립 및 조립공장 개설, ④ 자동차 부문의 직업교육, ⑤ 자동차 액세서리 조립 촉진
- (산업 현황) 코트디부아르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자동차 보유량은 '20년 기준 12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IVECO/SOTRA의 미니버스 조립공장이 코트디부아르 최초로 '22년 설립됨
- (투자 기회)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자동차 조립 분야에서 국가의 위치를 강화하고자 하며, 교통부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협력하여 해당 분야 투자에 대한 연구에 착수함
  -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특히 자동차부품 공급, 조립 유닛 설립, 장비 생산, 조립 및 유통, 조립 또는 기계 제조를 위한 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세제 혜택)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입 관세 부분 면제, 부가세 면제, 세액 공제, 법인세 일부/전부 면제(5~15년), 수입 관세 부분 면제 혜택 제공

※ 한-아프리카 정상회담('24.6.)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구도 형성에 따라 공공 프로젝트, 민간시장 진출 등의 기회 활용  
 ※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시장은 언어 장벽, 한국과의 접근성 등으로 아직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잠재적 기회가 풍부하므로 전략적 관심과 주목 필요

## 1. PEST 분석

<b>Political 정치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코트디부아르 대선은 정치적 안정과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치러질 전망 → 다만 내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li> <li>• 사헬 3국(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탈퇴('24.1월)로 인한 서아프리카 지역 정치적 통합 약화 가능성</li> <li>• 농산물 및 천연자원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발전 도모</li> <li>•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추진</li> </ul>
<b>Economic 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트디부아르 경제는 공공 및 민간 투자 강세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li> <li>• 2024년 6.7%, 2025~2028년 6.9%의 경제성장률 전망</li> <li>•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되나, 10년 만의 최고치였던 5.2%('22)에서 4.4%('23)로 둔화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매력을 유지</li> <li>• 디지털 및 교통 인프라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주변국 테러로 인한 안보 이슈가 투자 환경에 변수로 작용</li> </ul>
<b>Social 사회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는 1960년 약 300만 명에서 2023년 약 2,9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연간 2.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li> <li>• 인구의 약 60% 이상이 25세 이하로 젊은 층이 많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전체 인구의 약 50%가 도시에 거주</li> <li>• 서아프리카 다른 저중소득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구매력 유지 → 아비장을 포함한 도시 지역 내 대형 슈퍼마켓과 쇼핑몰이 빠르게 확장,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li> </ul>
<b>Technological 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range 등 대형 통신회사들의 인프라 확충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여 디지털 서비스 성장 가속화</li> <li>• 외국계 금융회사 진출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모바일 결제 및 디지털 뱅킹 서비스 수요 증가</li> <li>• 환경 인식 증가로 전기차 소비가 시작되면서 관련 인프라 확충 진행</li> <li>• 첨단 무역박람회장의 건축 등으로 MICE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서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매김 중</li> </ul>

##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강 점(Strength)

- 디지털 산업 육성 :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디지털화 및 경제 다변화 계획은 우리 기업에 진출 기회 제공
- 개발 노하우 전수 : EDCF 기금 활용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경제 발전 경험 공유 가능
- 지역적 이점 :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 허브로, 우리 기업이 서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약 점(Weakness)

- 비교적 높은 초기 투자 비용 : 인프라와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초기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높은 비용 (물류비 포함)
- 법적 및 행정적 복잡성 :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까다로운 법적 절차로 진출 애로 발생 우려

### 기 회(Opportunity)

- 디지털·보건 부문 선진화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 혜택 강화
- 견고한 구매력 유지 : 신흥 중산층 증가로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대
- 양국 간 협력 강화 : 한-아프리카 정상회담('24.6.) 이후 우리 기업 진출 기회가 열릴 전망

### 위 험(Threat)

- 정치적 불안정성 : 2025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기업 활동 악영향 우려
- 경쟁 심화 :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경쟁 치열
- 기후변화 및 농업 의존성 :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는 경제에 악영향 우려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 활용 디지털 전환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li> <li>• 코트디부아르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해 서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디지털·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li> </ul>	디지털·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
ST 전략 (차별화전략-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정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li> <li>•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li> </ul>	보건의료·ICT 솔루션 현지화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li> <li>•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한국 소비재 관심도 증가에 따라 현지 소비자 트렌드와 선호도를 반영한 한국 소비재 현지화 전략 수립</li> </ul>	현지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소비재 시장 공략
WT 전략 (방어/철수-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 및 행정적 비효율에 대비한 투명한 사업 운영 체계 구축</li> <li>•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한 단계적·유연한 진출전략 수립</li> </ul>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입 장벽 극복

###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보건·디지털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개발은행, EDCF 기금 등의 자금 활용한 대규모 디지털·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li> </ul>
의약품·의료기기 시장 타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통한 보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li> </ul>
소비재 시장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이상 소비자 대상 K-뷰티,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현지 마케팅 강화 및 패키징 현지화</li> </ul>
ICT 솔루션 현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선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제공</li> </ul>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또는 기술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 장벽 극복</li> <li>•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li> </ul>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경제 허브	<p>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보건·디지털 분야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활용, 시장 진출 기회 모색 구매력/소비 수요 확대에 따른 소비재 틈새시장 공략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 장벽 극복</p>

### 3-1.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의약품·의료기기 수요 증가 및 공급 확대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구매력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질병 예방·퇴치를 통한 건강한 삶 추구
  - \* 한국 의약품 對코트디부아르 수출액은 '23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
  - \*\* 한국 의약품 수출액 : 554백만 달러('21) → 784백만 달러('22) → 640백만 달러('23)
-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 증가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
  - \* 주요 성장 동력 : 인구 증가, 중산층 확대, 건강 관리 투자 증가, 의료 기술 발전 등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보건 분야 인프라 확충 일환 병원·클리닉 확장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수요 증가
  - 코트디부아르 7개 지역 내 102곳의 의료시설/병원 설립 추진
  - \* 세계은행의 2,100백만 달러 자금 투입
- 의약품 수입 증가 및 의존도 심화
  - 현지 의약품의 10% 정도만이 현지 생산으로 공급,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 80~90%로 추정
  - \* 코트디부아르 보건부, '21년 KOTRA 아비장 무역관 인터뷰 및 화상상담 참가 바이어
- 의약품 공급 부족, 소비자들의 낮은 구매력 등의 요인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의사 처방 대신 소위 '자가 진단' 및 처방을 통해 길거리나 재래시장에서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제품 구매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의약품 조달 기회 모색
  - 이들 기관의 발주사업 참여를 통한 공적 시장 공략\*이 초기 진출은 물론 사적 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침
  - \* 신풍제약 개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의 경우 '19년 코트디부아르 정부 공인 치료제로 등록, 공적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제품 공급과 동시에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 및 설비 공급
  - 유망 품목 : 암·말라리아· Dengue열·간염 등의 질병 진단기기 및 시약, 방사선 치료기기, X-ray 등의 영상진단기기 및 시약, 환자용 자동 침대 등 가구류
  - \* 각종 의료 소모품(주사기/장갑/봉대 등)의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 불가피
- 초기 시장 진출 단계에서는 사회공헌 활동 병행이 효과적
  - 제품 기부,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CSR을 통한 이미지 구축이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3-2.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및 보건 분야 등 인프라 확충 사업 참여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4.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의 EDCF 약정 체결.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의 디지털 및 보건 분야 협력 강화 요청 등으로 코트디부아르 내 공공 부문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10년 만의 방한으로, 특히 디지털 분야의 한-코트디부아르 경제협력 강화 희망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교통, 에너지, 제조업 부문에 공공 및 민간 투자에 집중
  -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약 33억 달러 규모의 국가 디지털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인프라(도로, 항만, 병원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사업 지속
  - 주요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및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 목표

### □ 진출전략

- 아프리카개발은행, EDCF 기금 활용 프로젝트 등 공공 부문 사업 참여
  - 우리 기업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자금 활용 프로젝트 참여 필요
    - \*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국가 중 경제·정치 둘 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
  - 현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장벽 극복
  -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확대로 사업 기회 발굴 및 정치·경제적 리스크 관리

### 3-3. 소비재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화장품 수출 확대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3년 코트디부아르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은 17억 6,000만 달러 기록
  - \* 일부 코트디부아르 현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화장품의 80%는 수입산
- 코트디부아르 화장품 시장은 '24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4%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구 증가, 중산층 확대, 젊은 소비자층 증가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성장세 전망
  - \* '22년 시장 규모는 약 130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8~10% 성장하며 '30년에는 약 216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 (현황) '23년 코트디부아르의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은 17억 6,000만 달러

- 코트디부아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80%는 수입산이며, 일부 현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현지 생산량은 전체 화장품 수요의 20%에 불과

#### • (전망) '24년에는 18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온라인 판매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24년에는 코트디부아르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 전체 매출의 1.9%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코트디부아르 화장품 시장은 '24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자료 : STATISTA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 경제 성장에 따른 신흥 중산층 증가로 소비자 구매력 상승 및 고급 소비재 수요 확대

- 코트디부아르의 소매 시장은 '22년까지 지속 성장했으며, 특히 현대식 식료품점이 확장되면서 소매 매출 증가
  - \* 코트디부아르 소비재 시장 : 75억 달러('22년) → 100억 달러('27, 잠정) (자료: Euromonitor)

#### • 온라인 상거래보다는 오프라인 유통이 더 활발

- 전자상거래 또한 '22년에도 서서히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Jumia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
- 다만 온라인 결제 시스템 부족, 소비자 대부분의 은행 계좌 미보유로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 쇼핑 선호
  - \* '22년 코트디부아르 소비재 총판매액 75억 달러 중 약 12.9%(약 9억 7,310만 달러)만이 온라인 상거래 판매액으로 나타남 (자료: Euromonitor)

#### • 천연제품 선호하지만, 제품 가격에 예민한 소비자 다수

- 소비자들은 천연 재료가 포함된 유기농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서아프리카의 미용 관습과 자연 재료를 활용한 미용법과 연관
- 고가의 다국적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저가의 현지 브랜드와 해외 중소 브랜드들이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소득 격차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

- 고가의 유럽 제품과 저가 제품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의 제품 공급

- K-Beauty 트렌드 활용한 한국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홍보

- 코트디부아르 시장 내 일반 소비자들의 한국 화장품 인지도는 매우 낮으나, 화장품 수입상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품질·효능을 알고 수입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

- 미백, 피부 재생 제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바, 스킨케어 제품과 시트 마스크, 미백 크림 등이 유망

### 3-4. ICT 솔루션 현지화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트디부아르 IT산업은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 모바일 사용자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 모바일 머니 사용자 수는 '19년부터 '23년까지 약 206% 증가 : 1,750만 명('19) → 5,360만 명('23)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3년 12월 아비장에 정보접근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 교육장, IoT 연구실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ICT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과 'Vision 2030'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진

#### □ 진출전략

- 한국의 선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제공
  - 프랑스어 사용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솔루션 현지화 시 프랑스어 번역도 필수적으로 필요
  - 모바일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솔루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현지 IT 기업 및 공적 개발 원조(ODA) 자금을 활용하여 초기 시장 진입 필요
  - 현지 IT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의 독특한 요구와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 및 서비스를 현지화하여 고객들에게 더 잘 맞는 솔루션을 제공
  - 코트디부아르는 디지털 인프라 개선 및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ODA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활용하여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첨부 1

##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중고 의류	선정사유	가격 문제로 인해 중고 의류 수요 증가, 최근 패션산업도 인기
	시장동향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가나, 중국, 영국, 프랑스 제품 수입 꾸준
	진출방안	다른 산업에 비해 가격의 구매를 크게 받지 않음(중고 제품 자체가 저가) 품질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시장 진출 모색
품목명 2		
플라스틱 원료	선정사유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 중 하나. 코트디부아르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
	시장동향	플라스틱 산업 발전, 현지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 부족
	경쟁동향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진출방안	현지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모색
품목명 3		
전기/전자제품	선정사유	신형 중산층의 등장으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 증가 및 도시화로 가전제품 수요 증가.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시장동향	자체 생산이 전무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저렴한 중국산 중고 제품이 끊임없이 유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진출방안	에너지 효율, 성능 등 제품 품질에 대한 마케팅 및 유력 바이어 네트워킹 중요
품목명 4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현지 생산업체 전무, 노후 차량이 많아 차량부품 수요가 많음
	시장동향	가격에 민감하여 질이 나빠도 저렴한 제품 선호
	경쟁동향	중국 제품 다량 유입
	진출방안	가격경쟁력 확보, 유력 바이어 네트워킹 중요
품목명 5		
중고 차량	선정사유	신차 가격 및 수입 제한 조치로 연식 낮은 중고차 수요 증가
	시장동향	저렴한 교통수단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특히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경쟁동향	많은 중고차가 유럽,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벨기에 수입 비중 높음
	진출방안	중고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량 품질 관리와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품목명 6		
불도저, 앵글도저	선정사유	주요 도로 공사 및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해 수요 증가
	시장동향	신품보다는 중고 제품으로 수입(중고 부품 포함)
	경쟁동향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진출방안	현지 바이어들의 구매력을 고려하면 국내 중고 장비 및 부품 수출이 유리
품목명 7		
화학제품	선정사유	농식품 및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화학제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다만 코트디부아르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 다대
	경쟁동향	미국의 Cargill사는 주로 코코아 가공에 집중, 이밖에 프랑스 등의 경쟁사 존재
	진출방안	정부 규제를 준수하고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화학제품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
품목명 8		
의료기기	선정사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병원 및 의료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확장으로 의료기기 수요 지속 증가
	시장동향	대부분 수입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진단 장비, 수술 장비, 피부미용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경쟁동향	프랑스, 독일, 인도, 중국 등
	진출방안	의료기기 수입뿐만 아니라 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이 중요
품목명 9		
광물성 비료, 화학비료	선정사유	주요 농업 프로젝트로 인한 수입량 및 금액 증가
	시장동향	대부분의 비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아시아(중국, 인도), 북미에서 수입
	경쟁동향	모로코, 러시아, 캐나다, 이집트 등
	진출동향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비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비료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지 농부들이 효과적으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장기적인 고객 확보
품목명 10		
화장품	선정사유	최근 아프리카 내 한국 화장품 수요 증가로 코트디부아르 또한 초기 시장으로서 우리 기업 진출 유망
	시장동향	천연 재료로 만든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여성 소비자들의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경쟁동향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다국적기업 브랜드가 코트디부아르 내 입지를 굳히고 있음
	진출방안	현지 유통망 1차 벤더 등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및 코트디부아르 소비자의 피부 타입과 기후에 맞는 제품 수출 필요

품목명 1		
의료	선정사유	말라리아, 에이즈, 장티푸스 등 열대 풍토병 발생이 만연. 관련 제품/의료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의료시설 부족,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여 병원 건설 추진, 의료장비 교체 수요 증가
	경쟁동향	유럽, 미국, 중국 기업과 경쟁
	진출방안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공립 병원 건설 사업 적극 추진 및 이를 활용한 제품/설비 납품 추진
품목명 2		
정보통신	선정사유	정부는 수많은 ICT 프로젝트를 통해 방대한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화 정책을 시행 중
	시장동향	데이터 센터 부족, 전자정부 도입 노력, 정보통신 장비 수입 및 기술 수입 증가 전망
	경쟁동향	유럽, 미국, 중국 등 기업과 경쟁
	진출방안	정부에서 주도하는 데이터 센터, 텍노폴 건설 사업 적극 추진 및 이를 활용한 제품/설비 납품 추진
품목명 3		
인프라/플랜트	선정사유	한국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인지도
	시장동향	MDB, 차관 등 국외 자원 확보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
	경쟁동향	중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프로젝트 대수 추진
	진출방안	EDCF 지원 사업, AfDB 주도 사업 진출 참여 제고
품목명 4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선정사유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등 많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준비 중
	시장동향	2030년까지 에너지 생산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42% 기대
	경쟁동향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중국 등
	진출방안	EDCF 지원 사업, AfDB 주도 사업 진출 참여 제고
품목명 5		
교육	선정사유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교육 및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
	시장동향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디지털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 강화에 집중.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
	경쟁동향	스위스, 가나 스타트업이 이미 진출해 있으며,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코딩, 디지털 기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출방안	현지 기업 혹은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현지화된 콘텐츠 제공 필요

**첨부 3****'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아프리카 수출 유망 품목 타겟	아프리카 의료 분야 진출을 위한 온라인 사절단	미정/온라인
	의료기기 진출 설명회	미정/온라인
	K-Beauty 설명회 및 상담회	미정/온라인

## 첨부 4

#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5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선거	2025.10월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단일 화폐(ECO) 도입 추진	2024년 연중 논의	2027년 출범 예정
제3차 국가개발계획 본격 시행	2025년 연중	2021~2025년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아비장 국제 농업 및 동물자원 전시회 (SARA 2025)	2025.5.23~6.1	Parc des expositions
코트디부아르 음료 및 건강식품 전시회 (SIBAL)	2025.3.27~30	Palais de la culture
AFRICA CEO FORUM	2025.5.12~13	
EUROPE-AFRICA FORUM	2025.5(잠정)	유럽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 ('24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윤하림	관장	아비장 무역관	+225-27-2251 -4715	halimyoona@kotra.or.kr
2			본사 000팀		

# 2025 코트디부아르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SBN : 979-11-402-1250-7 [95320]